

중세 예악과 근대 수용

—악(樂) 사상을 중심으로—

허 남 춘*

차 례

1. 서
2. 예악사상
3. 악과 도량형
4. 악과 자연관
5. 조선조의 악
6. 예악의 근대 수용

1. 서

서구의 미래학자들 사이에서 근대문명 비판이 이루어지고, 근대성 극복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지성들도 생태론적 사유의 부재와 파탄을 인식하고 서서히 근대성의 한계를 논하기 시작했다. 다행스런 일이다.

근대사 100여 년 동안 우리는 전통의 심각한 파괴를 경험하였다. 외래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서구사상의 유입과 함께 기존 삶의 양식을 철저히 서구적인 것으로 대체하였다. 그리고 서구가 겪는 것과 유사한 정신적 공황에 직면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속에는 발전과 진보의 논리가 우세하고,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혼란과 상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서구문화 추종의 긍정적 평가가 지배적이다. 문화발전의 전제 조건은, 정체되지 않고 끊임 없이 새로운 문화의 동력을 받아들이되, 그것을 받아들일 자기문화의 토대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전통문화에 서구문화를 결합하여 합리적 개조가 가능한 방향을 모색해야 하고, 우리가 지녀야 할 사유방식·행동양식·생활방식을 새로이 정립시켜 나가야 한다.

현대 우리의 정체성(正體性)은 대체로 근대사 100여 년의 소산이다. 하지만 100년 이전의 과거 역사·전통의 무게도 가볍게 봐야 한다. 전통적 사유의 실체를 냉정하게 규명해야 하고, 조선조 500년을 명료히 들여다 보아야 한다. 조선조를 관통한 유교적 사유, 그 중에서도 유교적 통치방식의 골간이 되었던 예악사상을 살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본고는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과정에 예악적 질서관이 작용하고 있던 사상사적 궤적을 탐구하고자 한다. 집단적 기억을 더듬어보며, 그것이 현대사회에 어떻게 수용되어 사회적 실천 덕목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찰해 볼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악사상의 본래적 의미를 원론에서부터 재구해 내고, 그것이 상하질서의 구축, 민심수습과 조화의 차원이었음을 가시화 하려 한다. 둘째, '악'은 '음악'이란 보편적 개념을 넘어 통치질서 구축의 근간인 경제적 질서 구축과 연관되고, 특히 도량형의 정비와 맞닿아 있음을 밝히려 한다. 셋째, '악'은 우주와 천지 자연과 인간세계의 조화를 추구하는데 절실한 것이었기에, 악에 담긴 자연관을 살피고 중세 유교적 자연관이 지향하는 바를 찾아내고자 한다. 넷째, 조선조 '악'의 정신을 찾아내기 위해 조선조 궁중악의 변모과정을 살피고, 조선 후기 예악의 실종에 이르는 과정과 조선 후기 정치적 혼란을 연관시켜 살펴볼 것이다. 다섯째, 예악의 근대 수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인식적·윤리적·실천적·미적 요

소를 두루 갖춘 예악정신을 현대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를 고민해 보겠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예악의 보편적 정신을 담고 있는 『예기』를 재해석하고, 조선조 통치질서를 포괄적으로 알 수 있는 『조선왕조실록』의 악에 관련된 기사와, 조선 후기에 편찬된 『증보문헌비고』의 예악 관련 기사를 통해 조선조 예악사상의 지향점을 밝히고, 이 결과를 토대로 근대 수용방안을 고찰하겠다.

우리에게 '악'은 무엇인가. 분열을 조화로 만드는 힘이다. 지역간·계층간·세대간의 이질적 사유와 감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원천이 악에 담겨 있다. 조선조 아악에서부터 조선 후기 정악과 민속악으로 전개되고, 근대 서양악으로 발전해 온 과정에서 우리는 서양악에 편중된 우리의 현실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근자 민족악에 대한 관심이 일고 있지만 그 본래의 정신까지 이해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본고는 바로 동양적 '악사상'에 담긴 원천적 힘을 발견하고, 그것을 전통사상으로 계승하여, 우리의 사유방식·행동양식·생활방식으로 정립하고자 하는 목표를 둔다.

2. 예악사상

예악이란 통치질서를 완비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시된 것이다. 예를 통해 상하의 질서를 구축하고 악을 통해 계층간의 위화감을 해소하고 계층을 통합하였다. 그래서 건국 초기나 국가의 기강이 흐트러지고 전란 등으로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 으레 악을 정비하였다. 악은 결국 민심 수습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신라 초기 덕사내(德思內)나 석남사내(石南思內)와 같은 지방의 악(郡樂)을 가져와 궁중악에 편제한 것은 지방민심을 수습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으며, 신라 말 국가적인 위기를 맞게 되자 토속신 제사를 드리고, 아울러 가악을 중시한 것도 발호하는 호족과 그에 동조하는 백성들의 불만과 위화감을 무마하기 위한 일환이었다. 이것은

전통적 예악이다.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논하는 것은 유교적 예악이다. 중세는 토속신앙으로 이루어진 고대 지배 이데올로기를 밀어내면서 시작되었다. 이 중세 보편주의적 이념은 불교와 유교이다. 불교는 지배 이데올로기로, 유교는 통치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았다. 중세의 시작은 유교적 통치 이념의 핵심부를 차지하는 예악사상이 전통적 통치 이념인 전통 예악을 철저히 배격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그 후 조선조에 들어서는 유교가 지배 이데올로기이자 통치 이데올로기인 것으로 통합되고, 불교적 사유를 철저히 배격하면서 유교적 예악에 의해 통치질서가 구축된다. 하지만 우주·자연의 변이나 천재지변을 사회적 혼란의 조짐으로 여기고, ‘악’을 통해 민심을 수습하고 국가질서를 회복하고자 한 점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악의 정비에는 또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다. 악의 대표는 적(笛)이었다. 기장 천이백 알이 들어가는 길이의 첫대를 만들고 이 첫대의 소리를 기준음으로 삼아 다른 악기의 음을 정비하였다고 한다. 요즘의 피아노 기준음에 맞춰 오케스트라의 음을 조화시키는 것과 같은 이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 첫대는 도량형의 기본인 ‘척(尺)’이 되었다. 도량형의 완비는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하는 토대가 되었고, 백성들은 일정한 경제적 수입을 보장받게 되니, 자연 민심이 안정되고 통치질서가 구축되었던 것이다. 서구식 근대화 직후 미터법을 보급하여 상거래를 바로잡아 경제적 질서를 구축하고자 한 점도 역시 통치질서의 구축과 연관된 정책이라 하겠다.

악은 조화를 추구한다.(樂從和) 소리를 조화롭게 한다는 것은 결국 민심을 조화롭게 하여 천지의 조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감정을 화평하게 하면 인간의 말과 소리를 조화롭게 할 수 있고, 나아가 사회의 불평과 불만을 해소하여 사회적 조화를 도모할 있고, 결국 정치적인 안정을 얻어 천하를 화평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1)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최광식, 『한국 고대국가의 지배이데올로기』, 한국고대사연구회 편, 『한국사의 시대구분』, 신서원, 1995. 허남춘, 『고전시가와 가악의 전통』, 월인, 1999, 59-60쪽.

악은 백성의 소리를 화평하게 한다.²⁾

악이라는 것은 성인이 즐거워하는 바이고, 이것을 가지고 민심을 선하게 할 수 있으며, 사람을 감화시킴이 깊어서 풍속을 바꿀 수 있다. 그러므로 선왕은 그 가르침을 밝혔다.³⁾

악이 백성의 소리를 화평하게 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선 백성의 노래 즉 민가(民歌)를 살펴 민풍을 바로잡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민가란 민간가요 혹은 민속가요의 준말로, 민요·무가·동요·참요·불찬가 등을 내포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⁴⁾ 왕은 민가의 내용이 음란하면 그것은 민간의 풍속이 음란한 것을 의미하니 이를 바로잡아 풍속을 교정하고 미풍양속을 담은 노래를 보급하여 그릇됨을 시정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다. 백성의 소리(民聲)란 민심을 지칭한다. 어지러운 풍속이 만연하면 당연히 어지러운 노래가 유포되어 민심을 흐트러트릴 것이다. 이때 국가가 나서서 백성을 교화하고 어지러움을 바로잡으면 자연스럽게 백성의 소리가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고 보았다. 이것이 풍화(風化)이다.

그런데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어지러워지게 된 것은 비단 백성의 풍속이 어지럽고 음란해져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정치가 잘못되고 가렴주구가 계속되어 백성들의 생존 근간이 흔들리게 되면 백성의 풍속이 어지럽게 된다. 특히 실정이 계속되어 백성의 살림살이가 피폐해지면 왕과 조정

2) 樂和民聲(『禮記』, 『樂記』) 이하 『악기』 『악기』의 경우 이민수, 『禮記』(해원출판사, 1996, pp.413-449)의 번역을 참조하였다.

3) 樂者也 聖人之所樂也 而可以善民心 其感人深 其移風易俗 故先王著其教焉(『禮記』, 『樂記』)

4) 김학성 교수는 민요·무가·불가 등을 민속가요라 칭하고 있다. (『속요란 무엇인가』, 『고려가요·악장연구』, 태학사, 1997, p.19) 중국의 경우 漢 樂府가 '각지의 민간가요를 대량으로 채집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며(『中國文學講話』 4, 臺北 巨流圖書, 民國 75年, p.411, '大量採集各地民間歌謠') 줄여서 민가(民歌)라고 하고 있다. 기타 중국문학사의 경우 민가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 (허세욱, 『중국고대문학사』, 법문사, 1986; 김학주, 『중국문학서설』, 동화출판공사, 1983.)

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급기야 현실정치를 풍자하고 비판하는 노래가 나타나 그 전승폭을 확산한다. 왕은 이런 노래를 채집하여 민풍을 살피고 자신의 실정이 있다면 고치게 된다. 이것이 풍자의 효용성이다.

백성의 소리를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 백성들의 비판거리를 제거하여 백성들의 불만을 해소한다는 의미이다. 빗발치던 불만이 제거되면 당연히 그들의 소리가 순해지는 법이다. 그런데 소리를 화평하게 하는 것은 백성의 감정을 매만지는 일이다.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이를 유추할 수 있다. 감정이 북받치면 소리가 격앙되고, 소리가 격앙된 상태는 마음이 동요되는 상태를 뜻한다. 감정이 격해지면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격앙된 소리를 내지르게 되고, 상대는 발악하게 된다. 소리의 부조화 상태이다. 그러나 감정을 평정하고 나면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순한 소리가 나온다.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마음을 주고받는 교감에서 문제의 실마리가 풀린 것이다.

노래 혹은 음악이 소리의 조화된 면이라는 것은 바로 민심과 민성(民聲)을 조화롭게 한다는 의미를 함유하고 있다. 악은 악기의 소리만이 아니다 그것은 말단을 두고 근본을 곡해하는 말이다.

예의 근본은 무엇인가. 곧 공경하는 것이다. 악의 근본은 무엇인가. 곧 화(和)함이다. 공자가 말하기를 “예니, 예니 이르는 것이 어찌 옥백(玉帛)을 이르는 것이겠는가. 악이니, 악이니 이르는 것이 어찌 종고(種鼓)를 이르는 것이겠는가” 하였는데, 공경과 화함은 근본이고, 옥백과 종고는 말단이다. 근본이란 것은 질(質)이고 말단이란 것은 문(文:형식)이다.⁵⁾

백성이 왕을 공경하고 왕이 백성을 공경함이 예이고, 왕과 백성이 화합함을 악이라고 한다. 악의 근본은 상하계층의 화합, 지역간의 화합, 전통과 외래의 화합에 있다. 예가 단지 폐백이라고 하거나 상하의 단순한 계

5) 『增補文獻備考』 卷 90, 『樂考』一. 이하 『增補文獻備考』의 번역은 『국역 증보문헌비고』 악고1(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4)을 참조하여 문맥을 가다듬었다.

층적 질서만을 의미한다고 하지 않듯이, 악이 단지 악기의 소리나 노랫가락을 의미한다고 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말단에 불과하다. 형식을 중시하고 근본을 소홀히 하면 문제가 생긴다.

악의 용성은 성음을 극진히 함이 아니오, 제사의 예는 재물을 정성스럽게 함이 아니다.⁶⁾

악의 용성은 성음의 아름다움을 극진히 하는 것이 아니라, 민풍을 순화시키는 것을 중하게 여긴다. 종묘제사와 같은 예에서 재물을 풍성하게 차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간의 교제를 바르게 하는 것을 중하게 여긴다. 악은 민심을 어루만지는 수단이고, 예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바로 하는 수단이다. 조선 전기에는 예악의 본질인 공경과 화(和)함에 충실하여 문물을 정비하고 국가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궁중악을 치장하고 성음을 극진히 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궁중제례를 풍성하게 하는 데에만 치중하여, 결국 나라 다스리는 이치를 잃어버렸으며 백성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말았다.

3. 악과 도량형

조선조의 예악은 그 근본보다는 말단에 매달렸기 때문에 많은 폐단을 낳았다. 그러나 조선 전기에서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특히 국가적인 기반을 완성시킨 세종조의 기록은 그것을 반증해 준다. 세종은 궁중악을 정비한 왕으로 알려지는데 이는 다만 음악을 정비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가장 큰 기반을 정비하였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세종 7년(1425) 가을에 거서(柀黍:검은 기장)가 해주에서 나고, 8년(1426)

6) 樂之隆 非極音也 食饗之禮 非致味也(『禮記』, 『樂記』)

봄에는 경석(磬石)이 남양에서 발견되었는데, 경술년(1430) 가을 경연에 나가서 채씨의 『율려신서』를 강하다가 그 법도가 매우 정묘하고 준비의 차례가 있음을 감탄하여 장차 율려를 만들고자 하였으나, 황종을 갑자기 얻기 어려웠다. …… 박연이 상소하기를 …… 원하건대 남쪽 지방 여러 고을에서 기르는 기장을 모두 가져다가 세 등급으로 골라서 이를 포개어 율관을 만들고 그 가운데 중국 음과 합하는 것이 있거든 삼분손익의 법으로 12율관을 만들어서 오음을 화하게 하면 도량형도 따라서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종조에 마침 기장과 경석을 얻자 박연에게 의뢰하여 율려를 정비하고 드디어 율관을 만든 후 도량형까지 마련하였다고 한다. 율려는 악을 만드는 법도이고 이 법도에 의거하여 제일 먼저 율관을 만들었다고 한다. 기장 천이백 알이 들어가는 율관을 만들고 중국의 황종에 의거하여 그 음을 조율하였다고 한다. 율관은 모든 악기의 대표음이 된다. 그리고 이 율관의 길이를 가지고 척(尺)을 만들어 도량형을 구비하였다. 악을 정비하는 근본은 악기를 만들어 궁중에서 사용되는 여러 의식절차에 음악을 연주하려는 의도가 표면적인 이유라면, 율관의 길이를 잣대로 삼아 도량형을 정비하여 국가의 기장을 바로 세우려는 의도가 이면적 이유였다. 그리고 이 도량형을 근간으로 정확하게 토지를 나누어 세금을 거두고, 국내의 상거래 질서를 바로 잡아 백성들의 불만과 불편을 없애고 민심을 수습하려 하였다. 악을 정비함은 율관을 만드는 것으로 이어지고, 율관인자를 만드는 기본 잣대가 되고 이 잣대에 의해 모든 경제적인 질서가 완비된 셈이다. 악을 정비한다는 것은 국가 통치질서를 구비하는 것이요, 민심을 수습하는 기본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거슬러 올라가 악을 구비하는 데 근본이 되는 ‘율려’에 대해 좀더 살펴자.

한 왕조가 일어나면 반드시 한 왕조에 따른 악이 있게 마련이다. …… 옛 성왕은 나라를 세우고 공을 이루어 정치가 안정되면 성악을 제정하여 각각 그 덕을 상징하였는데, 일체 모두 율려(律呂)에 근본하였으니, 율려는 규구(規矩)이고 악은 그 방원(方圓)이다. 악을 제정하면서 율려에 근본하지 않으

7) 『增補文獻備考』 卷90, 『律呂製造』.

면 마치 방원을 그리면서 규구에 근본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어찌 방원을 이루겠는가.⁸⁾

악은 울려에 근본을 둔다고 했다. 그리고 울려는 규구 즉 원을 그리고 사각형을 그리는 컴퍼스나 자와 같다고 했다. 정확한 원을 그리고 정확한 사각형을 그리기 위해서는 컴퍼스와 자가 동원되듯이 법도에 맞는 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울려가 근본이 되어 한다고 했다. 이 울려를 바탕으로 5음 12율을 제정하였다.

이 울려를 근간으로 하여 위에서 언급한 바 울관을 제작하고 이 울관의 길이를 한 자(尺)로 삼아 도량형을 견비하였다. 세종조에 기장으로 율을 정하고 구리로 자를 만들어서 군읍(郡邑)에 나누어 간직하게 하였는데, 후에 여러 병란을 겪어서 모두 유실되고 조선조 후기에는 오직 삼척부에만 남아 있었다고 한다. 영조 16년(1740) 삼척부에 간직되어 있던 세종조에 만든 포백척(布帛尺)을 가져와, 당대 쓰고 있던 모든 척도를 교정하여 중외에 반포하여 시행하도록 명한 바 있다.⁹⁾ 『증보문헌비고』에 의하면 서양의 1미터는 우리의 3척 3촌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미 서양으로부터 들어온 미터법과 우리의 척을 비교하고 있다. 그리고 울려와 도량형을 제시한 후에는 역대 악제(樂制)와 악기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중세의 국제적 질서라 할 중국의 울려와 황종울관에 맞추어 우리의 울려를 제정하고, 도량형을 바로 잡아 국가의 경제적 질서를 세우고, 음악의 제도를 바로잡아 정치적 질서를 세웠다. 그러므로 악은 통치의 근간이다. 정치·경제적 질서를 바로 세워 민심을 바르게 하고 그들이 왕의 통치에 순순히 따르게 하는 고도의 통치기술이었다. 이 치도(治道)는 항상 예악을 앞에 두고 형정(刑政)을 뒤에 두는, 법치보다는 덕치(德治)를 중시하는 통치방식이었다.

예를 가지고 그 뜻을 인도하고, 악을 가지고 그 소리를 화평하게 했으며,

8) 一王之興必有一王之樂 古之聖王 功成治定 制爲聲樂 皆各象其德而一 皆本于律呂 律呂規矩也 樂其方圓也(『增補文獻備考』卷 90, 『樂考』.)

9) 『국역 증보문헌비고』 악고 1, 『도량형』(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4), 92-94쪽.

정치를 가지고 그 행동을 한결같이 하고, 형벌을 가지고 그 간사함을 막았던 것이다. 예악형정의 그 극치는 하나이니, 백성의 마음을 같게 해서 치도(治道)를 이루는 것이다.¹⁰⁾

예악을 모두 얻음을 일러 유덕(有德)이라 하고, 덕이란 얻음이다.¹¹⁾

예악을 얻음을 유덕이라 하니, 예악으로 통치함은 덕치를 의미한다. 예악이 근본이면 형정은 말단의 통치방식이다. 여기서 '그 뜻' '그 소리' '그 행동' '그 간사함'의 '그'는 넓게는 우주 자연만물과 사람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는 '백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백성의 뜻과 소리를 인도하여 조화시키면 나라를 다스리는 방도가 이루어지는데, 예악으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형정으로 백성의 행동을 규제하고 그 사악함을 예방하게 된다. 정치는 예악의 구현이어야 한다.

진실로 악을 보고 정치를 아는 사람이 조선악을 들으면 세대를 따질 것도 없이 대장·대소·대호·대무의 악과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다.¹²⁾

대장은 요(堯)의 음악 이름이고, 대소는 순(舜)의 음악, 대호는 은나라의 탕(湯)의 음악, 대무는 주나라의 무왕(武王)의 음악이다. 모두 성인의 음악을 뜻한다. 조선 전기 세종조에 악을 정비하게 되니 조선악이 성인의 음악에 견줄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음악 - 악기의 연주와 악곡 - 만을 갖추었다는 의미를 넘어, 성인의 치도와 비견될 왕도정치의 근간을 마련하였다는 자부심의 표현이다. 그래서 정치를 아는 사람이 조선악을 들으면 통치제도의 구비됨을 보고 질서에서 우러나는 조화된 악을 들

10) 禮以道其志 樂以和其聲 政以一其行 刑以防其姦 禮樂刑政 其極一也 所以同民心 而出治道也(『禮記』, 『樂記』)

11) 禮樂皆得 謂之有德 德者得也(『禮記』, 『樂記』)

12) 苟觀樂知政者聽之 不待考論世代 是樂章韶護武之樂也(『增補文獻備考』 卷 91, 『樂考』1.)

을 수 있다고 한 것이다. 그 악은 민심이 조화된 치세지음(治世之音)이란 말이다. 악은 정치이다. 예악을 얻음이 유덕이고, 유덕이란 덕치이고, 덕이란 우주 자연만물의 이치를 깨달아 민심을 얻음이다. 인간의 감정은 소리를 통해 나타나고 그 감정이 어그러지면 세상을 원망하고 정치를 비난하는 소리가 비등해진다. 소리를 잘 다스리는 것은 바로 민심을 얻는 일이 된다.

올려를 바탕으로 5음(궁상각치우)을 바로 세우는 이치는 도량형을 정비하는 실제적 효용성과 합치된다.

궁(宮)음이 어지러우면 악의 소리가 거칠어진다. 그 왕이 교만하기 때문이다. 상(商)음이 어지러우면 소리가 기울어진다. 그 신하가 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각(角)음이 어지러우면 소리가 시름에 차 있다. 이는 백성이 원망하기 때문이다. 치(徵)음이 어지러우면 소리가 슬프다. 이는 그 일이 힘들기 때문이다. 우(羽)음이 어지러우면 위태롭다. 이는 그 재화가 궁핍하기 때문이다. 이 다섯 가지가 다 어지러워서 서로 능멸하는 것을 만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되면 나라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을 것이다.¹³⁾

궁음이 어지러움은 군주의 독단을 의미한다. 상음이 어지러움은 관계의 질서가 허물어짐을 의미한다. 각음이 어지러워 시름에 차 있다 함은 백성들의 현실비판을 의미한다. 치음이 어지러워 소리가 슬프다 함은 생업이 어렵거나 생업을 잃는 경우 때문이다. 우음이 어지러워 위태롭다 함은 경제가 피폐해졌기 때문이다. 요즘 정치상황으로 말한다면 통치자가 독단과 횡포를 부리고, 관료들이 정직하지 못하여 부정부패를 일삼고, 백성들이 정치현실에 대해 염증을 느끼고, 국민의 생업이 위태로워지고 사업이 위기를 맞는 현상이고, 국가 경제가 부실해진 상황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 다섯 가지가 다 어지러워진다 함은 국가 정치경제의 총체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의미한다. 악은 군신민사물(君臣民事物)의 다섯 가지 도리에

13) 宮亂則荒 其君驕 商亂則陂 其官壞 角亂則憂 其民怨 徵亂則哀 其事勤 羽亂則危 其財匱 五者皆亂 迭相凌謂之慢 如此則國之滅亡無日矣(『禮記』, 『樂記』)

통한다.¹⁴⁾ 예는 이 다섯 가지의 위계질서와 관계를 굳건히 세우는 절차이고, 악은 이 다섯 가지의 질서와 관계에 심한 갈등과 균열이 생기면 이를 조화시키는 절차를 의미한다. 예악은 인간관계의 또 다른 이름이다.

선왕이 예악을 마련함에는 구복(口腹)과 이목(耳目)의 욕심을 극진히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것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호오(好惡)를 공평하게 하는 일을 가르쳐서 인도(人道)의 바른 데로 돌아가게 하려는 것이다.¹⁵⁾

예악을 제정한 뜻이 의례의 절차를 화려하게 하고 까다롭게 함이 아니다. 왕이 신하와 만나고, 왕이 백성과 만나고, 왕이 손님과 만나는 의례에 격식을 두고 그 관계를 돈독히 하려는 바도 있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인간의 도리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마땅히 좋아할 것을 좋아하고, 미워할 것을 미워해서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이다. 자신의 분수에 어긋나는 욕심을 버리고 편안해진 낙천성 - 이 천진난만함이 예악의 근본정신이 아닐까. 자신을 바르고 편안한 데에 두고 남도 배려하는 인간관계가 예악의 출발이다. '베풀고 값는 일이 예악'¹⁶⁾ 일진대, 이는 관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 하겠다.

4. 악과 자연관

중세의 사람들은 인간세계의 부조화나 갈등, 파탄이나 위기가 발생하게 되거나 발생할 정도의 극심한 상태에 이르면 천체나 우주의 변괴 혹은 재이(災異)가 나타난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정치적 위기의 조짐으로 보아

14) 樂者 通倫理者也(『禮記』, 『樂記』)

15) 先王之制禮樂也 非以極口腹耳目之欲也 將以教民平好惡 而反人道之正也(『禮記』, 『樂記』)

16) 樂也者 施也 禮也者 報也(『禮記』, 『樂記』)

역사에 기록하고 있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1000여 개의 자연현상과 고려사의 6500여 개, 조선 초기 100년 동안의 8000여 개의 자연현상 기록은 그들의 세계관의 반영이다. 그들은 이러한 흉조와 이상이 생겼을 때 가악(歌樂)을 사용하여 그 조화를 도모하기도 하고, 제사를 통해 그 본연의 질서회복을 꾀하였다.

이것이 그들의 유기체적 우주론이요 예악사상이다. 재앙을 물리치고 우주적 질서를 모색하는 데에 유교적·불교적·전통적 종교가 함께 동원되었듯이, 악을 통한 모색에 있어서도 불교적 가악과 유교적 가악과 전통적 가악이 두루 소용되었다. 중세 이전에는 “그 가악관에 대하여 전통적 가악관과 유교적 가악관 및 불교적 가악관을 아울러 가지고 있어, 그것이 천지조화·사회질서·우주적 리듬을 바르게 실현하는 방편으로 존재하는 것이라 사유”¹⁷⁾ 하였던 것이다. 중세 전기까지도 이런 특성이 두루 나타나고, 중세 후기에는 유교적 예악사상에 의거한 가악관이 나타난다.

중세 후기 즉 고려 후기에서 조선 전기에 마련된 유교적 예악사상은 천·지·인의 삼재(三才) 가운데 있고, 인은 하늘과 땅의 조화에서 완비해질 수 있다고 하였다.¹⁸⁾ 그래서 『증보문헌비고』에서는 책의 첫머리에 ‘상위고(象緯考)’와 ‘여지고(輿地考)’를 두고 그 다음에 ‘예고(禮考)’와 ‘악고(樂考)’를 두고 있다. 인간이 만들어나가는 질서와 조화의 세계는 천지와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비롯된다는 사유이다.

조선조의 왕은 천지 자연에 변괴가 생기면 이는 인간 사회에 부조화가 생길 조짐이라 여기고 근신하였다고 한다. 우선 감선(減膳)하였고, 철악(徹樂)·공구(恐懼)·수성(修省)하였다. 반찬 수를 줄여 근검함을 몸소 실천하고, 자신의 결함이나 실정(失政)이 없는가 반성하고, 자기 수양에 전념하며 주변을 세심하게 살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옥에 갇힌 자들 중에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자가 없는지 살펴 중죄인이 아니면 대체로 방면하여 민심을 수습하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자연계의 재앙에 대해

17) 김승찬, 『韓國上古文學研究』, 제일문화사, 1978, p.148.

18) 이민홍, 『한국 민족예악과 시가문학』,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1, 18쪽.

지나치게 비과학적인 대처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연계의 심각한 파괴와 오염 속에서도 방자한 태도를 고칠 줄 모르고, 파멸이 눈앞에 와 있음에도 오히려 경제발전에 박차를 가하며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틀 속에서 욕망을 줄일 줄 모르는 현대인의 삶보다는 가치 있는 것이라고 확인한다. 조선조의 통치방식은 비과학적 전제가 있다 하더라도, 재앙에 대처하는 인간의 겸허함이 담겨 있다. 인간세계의 부조화나 갈등은 결국 인간의 노력으로, 특히 왕과 통치권의 자기 혁신으로 가능한 것이었기에, 자연계를 빌미로 삼아 수시로 왕이 스스로 검소한 생활을 하고 인간의 주변을 돌아보아 공정한 정치를 펴고, 민심을 어루만졌다는 시대적 논리로 읽혀진다. 왕이 반찬 수를 줄이며 검소한 생활을 하면 당연히 관료들도 그러했을 것이고 국가 전체적 재화가 절약되어 국가 경제를 강화하고 백성의 세금을 감면하는 효과를 가져와 민생이 두터워졌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이것이 조선조 유교의 자연관이다. 그들은 자연의 재앙을 늘 악(樂)의 범주 속에서 인식하였고, 악으로 해결하였다.

악은 천지의 조화이고, 예는 천지의 질서이다. 조화로운 까닭으로 백물이 모두 감화되고, 질서인 까닭으로 물건이 모두 분별이 있다. 악은 하늘에 말미암아 만들어지고, 예는 땅의 법칙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다.¹⁹⁾

악은 천지의 조화라 했고, 천지와 조화롭기 때문에 자연만물이 감화되고 화육(化育)된다고 했다. 악은 천지자연과 우주의 조화를 추구한다고 하겠고, 이것이 바로 유기체적 우주론 혹은 유기체적 일원론이라 하겠다. 동양에서는 인간과 사회와 자연과 우주가 음상스런 하나의 법칙과 질서에 의해 움직인다고 사유하였다. 여기서는 인간과 자연의 행복한 조화를 꿈꾼다. 반면 서양은 인간과 자연을 별개의 것으로 바라보았고, 자연을 정복이나 투쟁의 대상으로 보았다. 이것이 그들의 이원론적 사유체계이다. 그들은 자연을 전쟁의 상태, 공동의 소유물, 재화 산출의 터전으로 보

19) 樂者天地之和也 禮者天地之序也 和故百物皆化 序故群物皆別 樂由天作 禮以地制 (『禮記』, 『樂記』)

았으며 이런 사유는 “지구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인간의 삶을 유지하고 편안하기 위해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존 로크의 말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한다.²⁰⁾

이러한 서구적 자연관은 문학과 예술에도 여실히 드러난다. 향기를 뿜는 듯한 꽃과 과일, 손으로 만질 수 있을 듯한 모피의 부드러움, 보석의 반짝임, 그것에 둘러싸인 인간의 당당함 - 이런 18세기 이후의 풍경화는 인간이 땅을 지배하고 소유하고 있다는 ‘시각적 공증서’로서 시작되었다.²¹⁾ 즉 세계에 대한 탐욕스런 소유욕으로 서구의 근대 예술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고, 서구가 근대를 열면서 전 세계를 식민화하고 그들의 탐욕스런 식욕을 부풀리며 마구 자연을 훼손한 반증이기도 하다. 생태계를 교란·파괴하고 이런 생태계의 고통이 인간세계의 고통으로 바뀌어, 인류는 더 이상 낙관적 전망을 갖지 못한 채 절망에 빠져 있다. 우주를 일원론적으로 보는 한 비극적인 세계가 존재할 터전은 상실된다. 비극정신은 세계를 일원론적으로 인식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²²⁾

예는 천지의 질서이고, 질서인 까닭으로 물건이 모두 분별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사물을 사물 자체로 대하는 사고가 배어 있다. 서구의 도구적 이성에 기준을 두었을 때, 사고가 사물을 사물 자체로 대하지 않고 사고의 총체성 속에 종속시키고 있다. 대상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대하는 태도인 셈이다. 이런 사고의 폭력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사물을 사물 자체로 환원시켜 사고하는 길²³⁾이라 하겠다. 사물을 인간에 예속된 존재로 보는 서구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사물과 인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사유를 회복할 때 자연파괴의 폐해는 극복될 수 있다. 중세의 예 사상 속에 이미 근대적 대안의 자연관이 담겨 있다. 서구의 도구적 이성을 극복하고 동양적 이성에 귀기울일 때이다.

20) 남경희, 『생태주의 인문학 서설』, 『열린지성』 10호, 2001년 가을·겨울, 42쪽.

21) 김용희, 『예술, 세계와의 주술적 소통』, 책세상, 2000, 27쪽.

22) 임철규, 『우리시대의 리얼리즘』, 한길사, 1983, 41쪽.

23) 안진태, 『신화학 강의』, 열린책들, 2001, 568쪽.

4. 조선조의 악

예악은 통치질서 구축의 근간이다. 예는 상하의 질서를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이라면 악은 그 간격을 누그러뜨리고 조화롭게 하는 상보적 관계를 갖는다. 그러나 악이 추구하는 바는 이에 머물지 않는다. 악이 추구하는 바는 사회질서와 인체심신과 우주만물이 상호 연계되고 감응하여 조화롭게 존재하는 것이다.

조선조의 궁중악 정비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기존의 아악을 정비함과 동시에 명(明)의 아악을 들여와 종묘·제례악으로 주로 사용하였다. 둘째, 한시체 혹은 한시현토체 악장과 용비어천가와 같은 신제 악장을 구비하였다. 셋째, 고려 왕조의 속악을 정비하여 회례연에 주로 사용하였다. 아악과 한시체 악장은 아(雅)·송(頌)의 전통에서, 용비어천가와 고려 속악은 풍(風)의 전통에서 마련되었다. 용비어천가를 여민락이라 한 것은 여민동락(與民同樂)의 정신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앞에서 언급한 상하층의 조화의식을 담고 있으며 풍화의 의도를 지닌다. 그리고 속악도 민풍을 담고 있는 전통악인데, 이를 통해 상하층의 화합을 추구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식의 일단을 볼 수 있다.

조선 초 지배계층은 중국의 아악·당악만으로는 국가 예악체계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고려 속악을 수용하여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풍을 살피고 민심을 조화시키는 풍의 전통을 수용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 왕조는 고려의 속악을 망국지음으로 비판하면서도, 일거에 고려 속악을 버리지 못하고 조선 전기 200여 년간 여러 의식에 사용하였던 것이다. 무수한 개찬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일거에 개혁하지 못한 것은 누적된 관습 때문이고, 민풍을 가늠할 수 있는 악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조선 전기의 악서로는 『악학궤범』 『악장가사』 『시용향악보』를 들 수 있다.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이 악서에는 아악·당악·속악 등이 실려 있는데, 속악은 16세기 후반에 이르면 대부분 궁중악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다. 조선 중종·선조 때에 개편의 요구가 당대의 집

권세력인 사림파에 의해 제기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속악을 대체할 새로운 민풍의 가요가 궁중악으로 채택되었다는 어떤 정보도 찾을 수 없다. 아박정재(동동)와 무고정재(정읍) 등만이 계속 연주되었는데, '정재 공연과 관련된 반주음악으로 쓰이면서 명맥을 유지'²⁴⁾하였다. 종묘 제례악에 쓰인 정대업과 보태평은 조선 후기에도 계속 쓰였지만, 이들은 아악식으로 변하였다. 그리고 임병양난을 맞아서는 조선 전기 아악·당악·속악 등 음악의 전통이 뿌리채 흔들린다. 그 원인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인한 나라의 재정적 궁핍과 악공들의 도망'²⁵⁾ 때문이라고 한다. 병자호란 후에 나라의 재정(物力)이 기갈되고 백성이 흩어졌으며, 악공과 악생이 무수하게 잡혀가거나 죽임을 당해, 종묘·사직·문묘·산천의 제향에 음악을 쓸 수 없는 지경²⁶⁾에 이르렀다고 하니 그 사정을 알 만하다. 성종대에 971명에 이르던 악생·악공의 숫자가 병자호란 이후에 619명으로 352명이나 감소되었다고 한다. 특히 아악을 담당하는 악생의 숫자가 399명에서 190명으로 현격히 줄었고, 아악 중 헌가악 연주는 124명 규모이던 것이 병란 직후(1643년) 22명으로 크게 축소된다.²⁷⁾ 아악을 담당하는 악생의 숫자가 현격하게 줄었고, 아악의 규모가 6분의 1 정도로 축소되었다는 것은, 여러 악 가운데 중시돼야 할 아악조차 경시되었다는 의미이다. 물론 아악기를 산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궁중음악의 하향 추세는 전란으로 인해 악공이 줄고 악기가 산실된 이유만은 아닐 듯하다.

조선조 후기는 '예'를 강조하고 악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한 것은 아니었을까. 조선 후기는 예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예법 문제로 많은 논쟁을 벌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앞에서 인용한 『예기』에서 보았듯이 예라는 것은 폐백이나 제물을 정성스럽게 함이 아니고 백성이 왕을 공경하고 왕이 백성을 공경하는 인간 관계, 즉 상하의 질서를 바로잡는 데에 있다

24) 송방송, 『한국음악통사』, 일조각, 1984, 382쪽.

25) 송방송, 앞의 책, 370쪽.

26) 亂後物力蕩竭 人民離散 樂工樂生等 被擄被殺者無數 廟社文廟及山川之祭 不能用
 (『樂掌譜錄』, 25-26쪽)

27) 송방송, 앞의 책, 377-381쪽.

고 했다. 그 근본을 버리고 말단과 형식에만 매달리고 있었으니 본질적인 예의 정신을 상실한 것이다. 조선 후기 숙종조와 영조조에 악기도감을 만들고 잃어버린 악기를 새로 만드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바는 아니다. 하지만 그 제작 결과는 미미하다. 악의 명맥이 유지되었다 하더라도 악의 정신은 상실하였던 것 같다. 악은 민풍을 순화시키고 민심을 수습하여 통치질서를 바로 세우는 근간인데, 이런 문제를 소홀히 한 흔적이 역력하기 때문이다. 결국 예악의 본질을 버리고 말단과 형식에만 치우쳤기 때문에 정치가 피폐해졌던 것이고, 허물어지는 중세를 형정으로 수습하려 했지만 삼정의 문란이 가속화되고 빠지고 정작 민심의 이반을 바로잡지 못했다. 조선 중기 사림파에 이어 조선 후기 실학파 문인은 예악을 중시하였고 『시경』의 시정신에 충실하였지만, 정치적 개혁을 이루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하였다.²⁸⁾ 조선조의 몰락은 예악을 소홀히 한 때문이다.

조선 후기 국가 통치에 예악사상을 중시하지 않았던 점은 그 말단을 통해서도 여실히 증명된다. 악을 정비한다는 것이 율려를 근간으로 하여 도량형을 세우고 국가 경제질서를 바로잡는 데 있음은 앞에서 밝힌 바이다. 율려는 규구(規矩)이고 악은 방원(方圓)이라 했다. 정확한 원과 사각형을 그리는 데 자와 컴퍼스가 필요하듯이 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율려가 근본이 된다. 이 율려를 근간으로 율관을 만들고 이 율관의 길이를 자로 삼아 도량형이 정비된다. 도량형을 정확하게 시행하고 이를 경제행위의 근간으로 삼고, 세금을 거두는 척도로 삼는다면, 민생이 안정되고 국가질서가 바로잡힐 것이다. 그런데 이 도량형이 여러 차례의 전란으로 거의 유실되어, 영조대에 새로이 복원하는 노력을 기울였건만 실효를 거두는 데에는 미치지 못한 듯하다. 여러 차례 전란으로 다수의 악기가 산실되고, 도량형조차 유실되는 데 이르니 악이 위축되고 경제질서가 허물어

28) 다산 정약용의 악론(樂論)이나 시경론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 다산은 서인들과 달리 원시유학에서 통치의 기강을 찾으려 했고, 악의 효용성을 알고 있었다. 앞으로 조선 후기 예악을 소홀히 하는 현실정치를 바로 잡으려 노력했던 다산의 악론에 대해 재조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

지게 되었다. 이러니 악을 통해 민심을 바로잡고 민생을 살핀다는 근본적인 악의 정신이 사라져 결국 통치질서가 허물어진 것이다.

조선 후기의 실정(失政)을 논하는 데 있어 중시해야 할 점이 바로 예악의 실종이다. 우리가 20세기에 서구적 문명을 토대로 근대국가를 만들며 경제적 도약을 하였지만, 정신적 풍요는 고사하고, 통치세력과 민심의 갈등과 반목 속에서 정치적 허무감까지 경험하였다. 정치적 안정과 계층 통합은 서구적 근대정신을 숭배한다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주체적인 민족정신을 갖고 민족의 대화합을 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잃었던 예악의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 이 예악은 근대 우리 삶에 과연 무엇인가.

6. 예악의 근대 수용

1) 현대에 논해지는 유학의 문제점

조선조 예악을 논하기 앞서 주목할 바는 유학이다. 유학, 구체적으로는 주자학을 조선조 지배 이념으로 수용하고, 예악을 이념 실현의 구체적 방안으로 여겼다. 조선조 500여 년을 지탱한 유학에는 공과 과가 있다. 500년을 지탱한 저력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유교적 봉건성에 집착하여 근대 역사발전의 의미를 무시하게 될 것이다. 500년을 한꺼번에 전근대적 봉건성의 지속이라 폄하하고 청산해야 할 역사라고 몰아세우는 것도 온당치 않다. 우리는 19세기 말 외세의 침탈과 20세기 초 일제의 강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역사에 대해 반성해야 하고 이런 결과를 낳게 한 19세기의 역사 전반에 대해 비판해야 할 것이다. 조선 전기를 지탱한 주자학이 임병양란 이후 서서히 그 모순을 드러내자, 주자학의 폐단을 실학정신으로 대체하며 마련된 18세기 문예부흥과 자생적 근대의 움직임은 19세기에 들어 지속되지 못한다. 외척의 세도정치가 그런 탈중세적 역사의 흐름을 저지시켰다. 그리고 경직된 유교 이념을 앞세워 형식적인 예(禮)

만 강조하는 사회가 되었다. 상하의 질서를 완화시키고 민심을 어루만지는 악(樂)의 정신은 실종되고 말았다.

조선조 멸망과 식민화의 원죄는 19세기 조선조의 역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20세기 민족의 비극을 원망하며 그 원인을 조선조 500년에 돌리고 있다. 500년 역사가 전부 파탄의 점철이고, 그 내부에는 주자학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500년 역사의 파탄과 파행과 퇴보의 원흉은 주자학이라고 지목하고 이를 비판·부정하기 일쑤이다. 현재의 잘못된 점을 검증하기 위해서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러나 과거 역사 모두를 부정하고 민족의 자발적 능력을 묵살해버리는 것은 지나친 자학이다. 우리는 일제의 식민사관과 미 제국주의의 서구적 근대교육을 거치며, 철저하게 우리 것을 버리는 연습을 해 왔고 남의 것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무모한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이 자학의 역사를 반성해야 한다.

삶은 변화한다. 어떤 것도 멈추어 정지할 수 없다. 정지하면 고여 썩게 된다. 변화하는 삶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나 자기를 토대로 남의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전통을 근간으로 외래를 수용해야 활력을 지닌다. 과거 긴 민족의 역사 동안 우리는 남의 문화와 문명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유연성을 지니고 있었다. 자기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남을 받아들이는 이 유연성 때문에 우리는 외세의 침탈을 막아내고 민족의 정통성을 지킬 수 있었다. 당시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었고 중국에서 들어온 문물은 세계질서였다. 이것을 거부하면 결국 중국의 문명에 현격한 차이로 뒤떨어지게 되어 중국의 먹이가 될 수 있었다. 그런데 조선은 이를 적절하게 받아들이며 자기 것에 착근시켰다. 자신의 국체를 근본으로 하여 남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주체적 수용태도였다. 이를 거부한 중국 주변의 민족들은 모두 중국에 동화되고 지배당하였다. 우리는 중세 세계질서에 적절히 대응한 결과 민족과 문화와 언어를 지킬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민족은 자기를 버린 채 남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지 반문해 보아야 한다. 21세기적 전망을 갖는 방법은 자기의 정체성을

명료하게 확인하는 데서 비롯될 것인데, 서구적 근대를 한 몸으로 실천하는 서구화된 한국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결론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우리는 민족의 지난 역사를 들여다보고 그곳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꼭 과거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 현대에 이르는 지속적인 역사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과거, 조선조 500년을 객관적으로 성찰해야 한다. 일제의 식민사관에서 벗어나고, 근대 학문을 이끌어갔던 서구적 시각의 폭력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두 시각이 마련된 과정은 어떤 것이던가. 우선 식민사관과 신식민사관이 형성된 근거부터 살펴야 할 것 같다.

첫째 일제 식민사관의 형성 배경이다. 일제는 갑오농민전쟁에 개입하고 청과 주도권 다툼을 벌여 여기에서 승리한다. 그후 갑오개혁을 조종하고 서서히 조선 침탈의 준비를 시작한다. 일제는 전국적인 민속조사를 통해 민족의 공동체 의식을 짚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당시까지도 조선은 마을 단위의 당제(堂祭 혹은 대동제)라는 신앙공동체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결속력을 지니고 있었는데, 일제는 이 당집을 파괴하고 무속과 민간신앙을 미신으로 규정하며 이를 철저히 배격한다.

한편 19세기 말 유럽들의 책사론은 반일·반외세의 경향을 띄다가 의병운동으로 발전된 후 철저한 반일 노선을 견게 되는데, 이 의병활동이 일제에 의해 패퇴한다. 그 후 일제는 유교를 단죄하기 시작하며 '유교망국론'을 들고 나온다. 이 유교망국론은 '조선 멸망에 대한 해답을 추구하던 이에게 효과적인 설명 방법'²⁹⁾으로 받아들여졌다. 일제는 지배계층의 이념인 유교와 민중의 이념인 무속·민간신앙의 장을 철저히 짓밟고 비판함으로써 식민지배를 공고히 하게 된다. 종교를 지배함이 민족의 정신을 지배하는 데까지 이른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둘째, 서구 제국주의 신식민 사관의 형성 배경이다. 그 주도적 실체는 물론 미군정이었다. 우선 일제가 주도했던 무속과 민간신앙에 대한 미신

29) 장석만, 『둘이켜 보는 '망국의 종교'와 '문명의 종교』, 『전통과 서구의 충돌』, 역사비평사, 2001, 203쪽.

타파운동이 근대 기독교에 의해 이어진다는 점이다. 물론 유교적 이념이 지배하던 조선조에서부터 무속은 음사(淫祀)로 지탄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제는 유교가 행하던 음사 탄압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민족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무속·민간신앙의 장을 배격하였고, 이것은 새로운 종교인 기독교를 교두보로 한 미군정의 식민화로 이어진다. '개신교의 미신타파 운동은 조선시대에 '음사' 규제와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의 치밀함과 조직성을 지니고 '미신'을 통제해 나갔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³⁰⁾고 하겠다.

전통적 질서를 떠받쳐온 이념으로서의 유교가 철저하게 반동적인 것으로 비판된 것은 서구적 세계관에 침식당한 한국 지식인에 의해서였다. 그들은 진보와 발전이 전통 파괴와 극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여기고 유교를 비판하여 왔다. 여기 한국 지식인의 진보적 사관이란 것에 대해 소개한다.

자신의 전통을 부정하게끔 하고 그것을 긍정하는 것은 보수적이고 반동적인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서구 사회과학의 사관이야말로 오리엔탈리즘의 전형이며 극치이다. 서구의 독특한 역사와 경험에서 도출한 역사철학과 사회과학의 이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한국의 과거와 현재에 적용시키면서 오히려 전통사회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현대사회 속에서 전통이 순기능을 하는 점에 천착하는 것을 비판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불행한 지식인상이다. 자신의 문화와 전통사상 속에서 발전과 진보의 동력을 찾고 미래의 지향점을 모색하는 것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도록 학문적 훈련을 받은 뿌리 없는 지식인이 한국의 '진보적' 지식인 상이다.³¹⁾

우리의 지식인들에 의해 우리의 전통은 철저하게 비판되고, 우리의 전통 속에서 발전의 가능성을 찾는 지식인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그 견해를 보수와 반동으로 몰아왔던 상황을 통박하고 있다. 우리는 일제시

30) 장석만, 위의 논문, 197쪽.

31) 함재봉, 『아시아적 가치 논쟁의 정치학과 인식론』, 『전통과 현대』 1998년 가을호, 235쪽.

대를 전후하여 유입된 서구의 이데올로기와 종교 그리고 문화와 예술 등의 제반 요소를 척도로 삼았고, 만일 민족적인 척도로 민족사와 민족문화를 평가하는 견해가 나타난다면 이는 진보적 지식인으로부터 '보수반동'이나 극우 또는 국수주의자로 비정되어 비난의 대상³²⁾이 되었다. 한국 지식인의 신사대주의 혹은 자학적 사관에 대한 적절한 비판이다. 과거 일제 식민상황에서는 친일파가 앞장섰지만 이제는 어엿한 독립국가의 지식인이 신식민 사관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학문적·사상적으로는 외세에 속박되어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가. 조선조 500년을 지탱한 사상을 한 칼에 중세 보수로, 나라를 망친 원흉으로 몰아세우는 이 단순명료함에 우리 스스로가 놀랄 지경이다. 이처럼 유학은 중세 질서로 고착되고, 한물 간 이념이나 전근대적 이념으로 치부되었다. 그 유교 비판의 주역은 우리였다. 마르크스적 계급사상 아니면 우파적 자유주의 사상을 통해 바라본 것만을 진보와 발전으로 여긴 서구 편향적 의식의 결과이다.

2) 예악의 근대적 수용

유교의 핵심은 예악에 있다. 유교를 이념으로 한 조선조의 통치는 예악 사상에 근거한 것인데, 우리는 주자학의 관념론적·철학적 담론에만 몰두하고 있다. 조선조 정치사회 연구의 초점을 '예학'에만 둔 경우도 있는데 잘못이다. '악(樂)'도 예와 같은 비중으로 중시해야 한다. 이런 폐단은 악을 음악이나 문학의 영역 정도로만 생각한 서구적 지식 때문이다. 예악은 문학과 음악의 영역을 포함하여 정치·예술·문화에 이를 만큼 그 함의가 크다.

예가 질서의 구축이라면 악은 계층의 통합을 의미하며 이 둘은 서로 항려(伉儷)의 관계에 놓인다. 근대의 법치(法治)에 유교의 덕치(德治)를 가미하여 치도를 만들고, 민생 조화의 민족악으로 치도를 보완한다면 새

32) 이민홍, 『한국 민족예악과 시가문학』,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1, 9쪽.

로운 통치체제도 가능하리라 본다. 형정(刑政) 위주의 법치주의를 예악 위주의 덕치주의로 두텁게 하고, 유교적 예에 우리의 전통적 종교이자 현재적 종교인 무교적·도교적·불교적·기독교적 종교 의식을 통합한 새로운 예의 개념이 출현한다면, 문명충돌로 야기되는 세계사적 불안도 극복하고 상생(相生)의 치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배풀고 값는 일이 예악이다. 예악은 관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예란 자기 수양을 통해 인격을 도야하고 학문을 연마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정립되는 방식을 의미한다. 핑카렛은 자율적 개인이 어떠한 개념 체계에도 구속됨이 없이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가정에 불안감을 표시한 뒤, 공맹(孔孟) 사상의 예(禮)의 개념으로 관심을 돌려 좀더 현실성 있는 대안을 모색한다. 그는 유교 전통에서 말하는 예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거동할 수 있는, '이미 검증된 거친 사회 관습과 관행의 역사적 테두리'라고 정의한다.³³⁾ 인간이 사회 관습과 관계를 배우는 과정을 유학의 '극기복례(克己復禮)'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서구의 극단적 개인주의에서 비롯된 가치 부재와 사회 위기의 극복 대안이 될 것이다. 유학의 예는 근대 사회의 도덕적 덕목이 될 수 있고 사회 통합의 원리, 국가 통치의 원리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격물·치기·수신·제가·치국·평천하(格物 致知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의 덕목 속에는 인식적·윤리적·실천적 요소가 있고 이것은 예악을 지향한다고 했다.³⁴⁾ 이때 악은 진선미를 하나로 포괄하는, 즉 인식적·윤리적 요소가 동시에 매개된 미적·표현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음악을 음향적·물리적 재료만으로 보지 말고 인간과 자연과 사회를 매개하려는 관점으로 살펴야 한다. 서구가 진선미를 분리된 것으로 생각하는 속에서

33) Herbert Fingarette, Confucius - The Secular as Sacred(New York/Hagers town/San Fransisco/London: Harper & Row Publishers, 1972) 이광세, 앞의 책, 45쪽.

34) 노동은, 『음악, 한반도에서 그 갈등의 언어성(1)』, 『한국음악사학보』 제5집, 한국음악사학회, 1990. 이소영, 『서양음악의 수용과 전통음악의 변화』, 『전통과 서구의 충돌』, 역사비평사, 2001. 참조.

음악을 인간과 자연과 사회로부터 분리시켜 미적 자율성만을 추구하는 반면, 동양에서는 진선미를 통합해 인식하였고 삶과의 연관성 속에서 파악하였다. 우리는 앞으로 악이 지닌 '인식적 - 윤리적 - 실천적 - 미적' 요소를 통합적으로 보는 시야가 필요하다.

윤리적 판단과 미적 판단이 동일한 지평에 놓여 있다는 것은 '그 행위가 아름답다'라는 표현에서 읽을 수 있다.³⁵⁾ 이러한 미를 근대 초극의 한 가능성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자본과 과학기술의 토대 위에서 있는 서구 미학을 뛰어 넘는 방식이 '윤리적 - 미적' 요소의 통합적 인식이고, 이 미의식이 파국을 향해 치닫는 근대성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매개는 <악>이다.

마지막으로 악의 실천적 측면을 논하고자 한다. 악은 율려(律呂)를 근간으로 하고 율려는 바른 음을 만들기 위한 바탕 원리이다. 이 율려를 바탕으로 율관이 제작되고 이어 모든 악기의 음이 구비된다. 우리 악에서의 궁상각치우란 군신민사물(君臣民事物)의 운용을 의미하는데, 통치자와 관료와 시민과 생업과 국가 경제의 바른 실천과 실현을 추구한다. 즉 각각의 소리를 바로 잡는다는 것은, 각 음이 상징하는 바의 계층의 질서와 인간관계를 올바르게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경제·사회질서의 총체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바른 음의 구체적 실현체인 율관의 길이로 자(尺)을 만들어 도량형을 정비하고, 경제체제를 바로잡는다. 정확한 잣대로 정확한 물가를 정하고 정확한 세금을 거두는 근간이 마련될 수 있다.

악은 우주·자연·만물과 사회질서의 유기체적 관계 속에서 그 조화를 만들어내는 매개체이다. 사회질서를 위해서는 자연 재앙의 조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자연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통치자에서부터 사회 지도급 인사,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의 근신과 소비 억제가 필요하고, 자연으로부터 만들어내는 온갖 소비재를 절약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자연과의 조화를 염두에 둔

35) 구모룡, 『근대성과 미적 초극의 방안』, 『문학사상』 344호, 문학사상사, 2001년 6월, 63쪽.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해 환경파괴에서 비롯되는 재앙을 미리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악은 인간과 자연을 상보적 관계로 설정하기 때문이다.

악의 말단에는 악기와 악가(樂歌)가 배열되어 있는데, 기존의 악가에 서구에서 들여온 근대적 악가를 결합하여, 동서악의 조화를 통한 새로운 민족악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민족의 심성을 조화시키고, 상하·노소·남북 통합의 악을 구축해야 한다. 동서의 울려를 포용하는 원리에 기초를 두고 음악문화와 문학문화³⁶⁾를 새로이 구상해야 할 때이다. 서구적 울려에 의해 지배되는 우리의 음악 풍토에 전통의 가락을 접목시켜 민족적 울려를 정립시켜야 한다. 그리고 가락에 없는 사실에 민족적 정서가 담겨 있음을 주목하고, 그 전통문화적 언지성(言志性)을 회복하여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
- 36) 악을 예악사상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만 창작·전승된 것으로 본다면, 용비어천가나 고려 속악인 고려가요는 문학적 관심의 대상이 되기 이전에 정치·철학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말 수도 있다. 악장이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국가적인 통치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는 엄밀하게 말하면 문학적 관심의 영역에 들기보다는 정치·철학적 관심의 영역에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악을 문학적으로 고찰해야 함은 물론이고 ‘예악사상의 구현 - 통치질서의 구축’이란 측면에서도 접근해야 하는 것은, 중세 악의 성격이 그러했기 때문이다. 현대의 악도 정치·철학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음악적 측면과 문학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